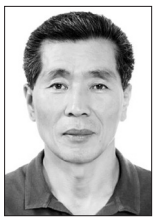
지역사회 안정·발전 공헌


문화장 박강용

체육장 한병산

효행장 레티감홍

봉사장 박영태

산업노동장 정대환

애향장 이엽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 6명 확정

남원시는 지난 6일 남원시민의 장 심사위원회(위원장 최경식 시장)를 개최하여 제30회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 6개 부문 6명을 확정했다.

문화장에는 박강용 씨가 선정, 박 씨는 현 남원시 옻칠공예관 관장이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옻칠장으로 남원시를 대표하는 옻칠장인이며, 체육장 한병산 씨는 현 남원시체육회 이사 및 남원거점스포츠클럽 부회장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국제대회를 비롯한 전국대회, 도민체전 등 다양한 체육인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원활한 대회 운영에 솔선했다.

효행장 레티감홍 씨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언어, 문화, 고부갈등 등 이주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타 다문화가정의 모범이 되었다.

봉사장 박영태 씨는 여러 봉사단체장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어려운 이웃에 대한 많은 헌신봉사의 실천으로 나눔봉사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산업노동장 정대환 씨는 농산물 통합마케팅 사업 활성화와 스마트 농업 도입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원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애향장 이엽 씨는 현 재인천 남원향우회장으로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으로 물심양면 후원과 선행을 펼쳤으며, 고향의 각종 행사 및 재난 재해에도 솔선수범하며 고향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수상자들은 시정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주관 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받게 되며, 남원시는 오는 10월 4일 개최될 제32회 흥부제 행사에 수상자들을 초청 남원시민의 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문화체육장 이병로

공익새마을장 강준희

애향장 장인수

애향장 이성희

효열장 노미경

특별장 김예지

'임실군민의 장' 수상자 6명 확정

임실군이 제43회 임실군민의 장 수상자로 임실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6명을 확정했다.

임실군민의 장은 임실군 거주자나 출신자 중 분야별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으로써, 이번 수상자는 읍면장, 기관·사회단체장, 지역별 향우회 등을 통해 후보자 접수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부문별 수상자로, 문화체육장에는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임실지회 이병로 회장(관촌면)이 선정됐다. 이병로 회장은 임실군 아동, 청소년, 장애인,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도자기 프로그램 운영 및 임실군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도자기 작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체험활동 기회를 통해 힐링과 치유로 이어지도록 했으며, 임실군 공모사업에도 적극 협조하여 폐교 활용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장으로 선정됐다.

공익새마을장에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실군 이장협의회장을 맡으며, 12개 읍면의 대표로서 임실군 군정 업무 추진에 솔선수범하여 협력한 강진면 부흥리 강준희 이장(강진면)이 선정됐다. 특히, 강준희 이장은 각종 나눔 및 봉사활동에도 앞장서 지역민들의 많은 칭송을 받고 있다.

애향장 분야는 부산광역시 기초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3선까지 당선되어 사상구 부의장 및 의장을 역임하면서 고향 임실군의 발전과 영호남 간의 화합, 지역 간 이해관계 해결을 위해 헌신하여, 2023년에 재부산임실군향우회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고향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장인수 회장(신덕면 출신)이 선정됐다.

또한, 삼계면 출신으로 서울로 출향 후 어려운 환경에서도 개인 사업을 하면서 고향 사랑 실천을 위해 장학회를 설립하여 고향 후진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경 임실군민회장으로 역임하면서 향우회를 활성화한 이성희 (전)회장(삼계면 출신)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효열장 분야에는 치매를 앓으시는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밤낮으로 지극 정성으로 섬기며 주위에 모범이 된 노미경(성수면) 씨가 선정됐다.

올해는 특별히, 지난 파리올림픽 사격 대회에서 임실군청 소속으로 은메달을 따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큰 인기를 얻으면서 임실군을 널리 알린 김예지 선수(임실군청)가 특별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민의 장은 우리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 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분들에게 임실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최고의 상으로, 이번에 군민의 장으로 선정되신 모든 분들에게 군민 모두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아동행복수당 내년부터 확대

순창군, 최대 20만원 지급 예정

순창군이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보편적 복지정책 중 가장 핵심이면서 최대 공약이기도 한 '아동행복수당'을 내년 1월부터 최대 2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군은 기존 2세~6세까지의 전체 아동과 7세~17세는 다자녀, 다문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왔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1세~17세까지의 전체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함과 더불어 특히, 1세~7세까지의 아동에게는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조손가구, 한 부모 가구 대상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면 월 10만원을 추가해 매월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2025년 1월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시키기로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확대로 내년 1월부터는 1세부터 17세까지 전체 아동 약 2,605명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되며, 1세부터 7세까지 전체 아동 713명 중 88%인 628명에게는 월 20만원씩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군은 이번 협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목표인 매월 40만원 지급을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은 저출산과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순창형 복지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사업"이라며 "우리 군은 앞으로도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영일 군수 '청렴한 순창' 다짐… 공직자 캠페인 전개

순창군이 추석을 맞아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했다.

'생각은 청렴하고 행동은 공정한 당신이 순창군의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이번 캠페인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 고취와 군민과의 신뢰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영일 군수를 필두로 한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돋보인 이번 캠페인은 지난 9일 군청 청사에서 '최영일 군수와 함께하는 출근길 청렴캠페인'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날 최 군수와 간부들은 청렴 어깨띠를 두르고 배너를 들며 직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직접 전파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추석 명절맞이 위문품 기탁 이어져

임실군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위문품 기탁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사)대한한돈협회 임실군지부(지부장 김성두)가 한돈 380kg(3,040천원 상당)을, (사)전북한우협회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창우)가 한우 133kg(4,123천원)을 기탁했다.

또한, ㈜솔라파크에너지(대표 윤근성)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실군에 생활 물품 세트 76개(1,250천원 상당)를 기탁했다.

한돈협회 김성두 지부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한돈협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우리 주변 이웃 모두가 소외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우협회 이창우 지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우를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움을 필요한 곳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임실군 한우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솔라파크에너지 윤근성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주위 이웃들이 마음이 따뜻한 명절을 맞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남원南原에서' 신소장품전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 지난 3일에 개막한 신소장품전 '남원南原에서'는 2018년 이후 수증과 구입을 통해 지속해서 수집한 작품들을 공개하는 전시로 4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전시에는 김병종 화백의 작품뿐만 아니라, 남원에서 태어난 작가, 남원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작가, 우연한 기회에 남원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작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 남원이 품어 낸 작가들의 삶과 예술을 기억하는 공간으로써 특수성과 보편성을 아울러 확보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다.

김병종 화백은 2020년 150점의 작품을 미술관에 추가 기증한 바 있고, 미술관은 남원 작가, 그리고 남원과 관련된 작품을 선보인 여러 장르(회화, 조각, 옻칠공예, 사진, 서예)의 작품들을 2022년부터 꾸준히 수집해 왔다.

이 전시에서 공개되는 신소장품의 작가는 김병종, 김아람, 김희선, 류영근, 박강용, 방귀자, 박연옥, 박향진, 성애바, 이경섭, 이흥재, 장홍철, 주소이, 레데츠키 아드리안이다.

전시는 2025년 1월 12일까지이며, 매주 월요일 휴관하고 무료관람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경찰서, 청소년 대상 특별 범죄예방교실 운영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 여성청소년계에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임실동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도박 등 신종 청소년 범죄 관련 특별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

특별 범죄예방교실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다.

임실서는 임실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내용, 피해발생 시 수사기관 신고 등 대응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